

1분만 확인했어도... '찜통 버스 사고' 부른 안전불감

'하차 후 인원 확인' 매뉴얼 안 지켜...광주 을 세번째 사고 통학버스 전수조사 필요...비상벨 등 안전장치 마련 시급

'통학버스에 남은 아이가 있었는지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버스에 갇힌 아이가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장치만 마련돼 있었더라면...'

폭염 속에 4세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사고는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해당 통학버스도 안전매뉴얼에서 정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법 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과 같은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운영 매뉴얼 지키지 않은 인제(人災) = "1분만 시간 내서 확인했어도..."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의식불명에 빠진 A(4)군을 태운 통학버스가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에 도착한 이후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운전기사 임모(51)씨 모두 운행 종료 후 차 안에 남아 있는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유치원 원장 박모(여·51)씨도 A군의 출석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의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

- 문제점 보니**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미등록
 - 유치원은 출석 확인도 안해
 - 버스 안 위험 알릴 장치 없어

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솔교사 정씨는 경찰에서 "다른 아이들은 하차시킨 후 버스 안으로 고개만 내밀어 인적이 없는 것만 확인했다"고 밝혔고, 운전기사 임씨도 "인솔교사가 승·하차 인원을 확인할 거라 생각해 남은 인원을 살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차량 미등록 어린이통학버스... 전수 조사 시급=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통학버스가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

학버스를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광주시교육청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차량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돼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1년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력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미신고 차량과 미등록 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벨 설치 등 의무화 규정 마련 시급=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는 올해 광주에서만 3번째다.

지난달 1일 북구 우산동 한 어린이집에서는 도착한 통학버스에 잠들어 있던 5세 어린이가 2시간 가량 갇혀 있다가 구조됐고, 앞서 4월에는 북구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1급 장애가 있는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교사에게 발견됐다 70여일 뒤 숨졌다.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차량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들이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비슷한 사고를 대비해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갇혔을 때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비상벨 등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을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찜통 버스 8시간 방치 아이 의식불명

광주경찰청, 인솔교사·버스기사·유치원 원장 입건

통학버스를 탄 4세 어린이가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아침부터 유치원이 끝날 때까지 8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유치원 원장 박모(여·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도보로 3분 거리에 살면서 가장 마지막에 버스에 탑승했지만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남겨진 A군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씨는 하차 후 8명의 아이만 데리고 유치원으로 들어갔고, 임씨

는 유치원에서 세차를 한 뒤 9시50분께 유치원 인근에 주차를 하고 개인적인 불 일을 보러 갔다. 임씨는 "세차하면서도 창문에 선명이 짙게 돼 있어 미처 A군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도 유치원 방학시간에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가 신청자 60여명 중 30여명만 유치원에 나왔지만 원생들의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버스기사 임씨가 하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군의 체온은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차량 독서등 등이 켜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군이 버스를 탈출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놀이장 북적

31일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생태물놀이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금성산 자락 1만㎡ 부지에 조성된 물놀이장은 2000여㎡ 규모의 풀장과 쉼터, 데크 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 운영은 오는 21일 까지로.

380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11명 추가 구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38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올해 초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20명을 검거한데 이어 이번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11명을 추가 검거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광주서부경찰은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해외 운영총괄 A(3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사다리게임, 달팽이 경주, 파워볼(로또 보너스 숫자 맞추기)에 많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1인당 한 게임에 최대 100만원을 걸 수 있었으나 다른 아이들을 사용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배팅이 가능해 도박사이트를 거처한 판돈만 3800억원에 달했다.

'상품권 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유통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쳤

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현행법상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카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여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양학원 채용비리 연루 교사 광주교육청, 임용 취소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남양학원측에 대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남양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의 부실 운영 및 교직원 채용 전형 과정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남양학원의 이사회 개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점 등을 들어 10명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품목 제공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교직원 채용을 청탁하며 공금을 건넨 교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추행 의혹 해임된 미술교사 전임 5개 학교서도 피해 신고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청 감사를 거쳐 최근 해임 처분된 광주 A중학교 미술교사가 전임지에서도 비슷한 의혹에 휘말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중학교 미술교사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근무했던 학교 5곳에서도 각각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각 학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며 매년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신고 등을 누락하는가 하면, 쉬쉬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억대 든 가방 분실 하루만에 찾아

○~현금 2억5000만원 이 든 가방을 잃고 발을 동동 구르던 70대 노인이 경찰의 발 빠른 조치로 하루 만에 돈을 온전하게 회수.

○~지난 31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목포시 동명동 건어물찜갈유 통센터 주차장에서 5만원권 현금 다섯 장(2억5000만원)이 들어 있는 A(75)씨의 현금 가방을 찾았다는 것.

○~A씨는 앞서 30일 오후 4시40분께 목포시 만호동 한 복지회관 앞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도난 신고와 달리 A씨가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A씨에게 현금을 은행에 예금할 것을 권유하고, 목포시에는 거처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G.O. 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이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이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이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상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메인 상업지구 3층상가 건물 238㎡ 카페, 식당, 병의원 추천 감정이 5억1천 ▶최저가 1억8천2백(36%)
- ★ [공정]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이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이 2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공정]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인근 신축 공장 유통시설활용가능 대지 5,585㎡ 건물 1,510㎡ 감정이 10억9천7백 ▶최저가 6억1천4백(56%)
- ★ [임몰] 광주 북구 두암동 원로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이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주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당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운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신당영역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곳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킨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당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스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